

# 母國 發展相 살필터

## 現代科學精神은 他律排除 自己依存

間은 물론, 韓國科學技術界와의 情報 및 知識의 交換에 利用하고 있습니다. 會報紙面을 통하여 國內 科學 技術系列 研究機關이나 學會의 現況을 紹介하고 大學이나 研究所의 教授 또는 研究要員 募集을 在美 韓人科學技術者에게 알리는 役割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專門分野에, 그리고 여러 地域에 散在해 있는 會員分布樣狀 때문에 會員 全體가 한자리에 모이는 機會를 갖기는 매우 힘들고 美國의 각 專門學會의 모임을 利用하거나 支部, 分會의 會合을 통하여서 會員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會員들 사이의 直接的인 交流와 紐帶強化에 있어서 支部, 分會의 役割이 특히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現在 20餘個의 支部·分會가 組織되어 있지만 本部에서는 이들 數를 늘리고 그 活動을 더욱 活潑히 하도록 盡力하고 있으며 또 많은 支部, 分會에서 定期 또는 非定期的으로 세미나 등의 會合을 가지고 또 그들 自身의 會報를 發刊하고도 있습니다.

國外科學技術界와의 聯關은 위에 말씀드린 會報를 통한 것 외에 過去 數年 동안 實驗 機器 및 圖書의 蒐集 寄贈, 科學技術關係 情報 및 資料의 收集 交換, 國內研究 調查 遂行의 支援과 研究成果 評價協助, 國內外 科學技術界人士間의 相互連絡과 訪問 便宜 提供등, 항상 國內의 여러 教育機關, 研究所, 學會 등과 緊密한 連絡을 維持하고 相互協助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또 今年度 特別事業으로는 再昨年에 이어서 國內 여러 關聯機關의 協力과 後援으로 이와 같이 母國을 訪問하여 綜合學術大會를 열게 되었습니다.

以上으로 不足하나마 우리協會의 紹介를 마치고,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國內外 科學技術人의 共同關心事中的 하나인 開發途上國家에서의 科學技術의 育成發展에 관한 個人的인 意見 두어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릇 한나라의 近代化는 좋고 싫고 간에 그나라의 科學 技術의 發展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近來에와서 先進工業國에서는 工業化에 隨伴하여 資源枯渴, 還境오염 등의 副作用이 두드러지게 되자 科學과 技術을 不信하는 風潮가 社會의 一角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의 合理的이고 體系的인 解決 또한 科學과 技術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強調하고 싶습니다.

開發途上國家에 現代의일 科學技術이 導入되는 經路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學校를 中心으로 하는 學術爲主의 經路이고, 다른 하나는 產業界와 一般市民生活의 必要에 의하여 工場을 세우고 運營함에 따라 들어오는 現場技術의 經路이고, 세째로는 政府가 特殊使命을 賦課하여 設置한 研究機關을 통하여 들어오는 經路가 그것입니다.

많은 開發途上國家에서 그 나라의 現代科學技術의 實質인 中心이라고는 위의 第3 經路의 國策研究機關뿐이고 그나마 3者間의 相互交流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弱點으로 指摘되고 있습니다. 勿論 어느나라에서나 그나라 事情에 適應하여 時急한 分野부터 優先的으로 人力과 資金을 投入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健全한 科學技術의 發展, 특히 그 效率인 土着化를 위하여서는 위의 세가지 經路가 어느 程度 調和있게 步調를 맞추고 서로 緊密한 聯關을 維持하면서 前進하는 것이 必要不可缺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각기 그 나라의 工業과 產業의 發展에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工學이나 應用科學方面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도 두말할 것 없습시다만은 우리가 5年이나 10年의 앞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50年, 100年 將來를 내다본다고 하면 基礎科學分野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특히 外國技術의 導入으로 初期의 飛躍인 工業發展을 이룩한 뒤에는 그나라의 科學인 土臺를 튼튼히 하는 것이 더욱 急하고 重要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關聯하여 附言하고 싶은 것은 科學技術은 科學技術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點입니다. 卽, 科學技術의 發展을 當장 눈에 나타나는 物質인 成果만 가지고 論하는 것은 너무나 近視眼인 態度라는 것입니다. 現代科學의 精神은 實驗과 理論으로 證明된 知識은 蓄積되어 知識體系의 一部가 되고 그것은 一定의 주어진 條件下에서는 언제나 再現할 수 있다는 믿음에 基礎한 樂觀인 展望을 주는 他律排除 自己依存의 精神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宿命論인 諦念이나 非合理的인 思考方式을 排擊하는 態度와 精神은 科學技術上의 問題 解決에 그치지 않고 國民生活전반에 걸쳐 廣範圍하게 建設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近來에 國內에서 學論되고 있는 科學의 風土造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한편 科學의 育成發展이라는 것은 短時日 內에 눈에 띄이게 進展을 보이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이웃나라 日本의 例를 보더라도 科學的인 自立이 完成되는데 數十年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政府나 國民은 이러한 科學發達의 性格에 대한 理解를 배풀고 參與성 있게 기다려 주시고 協力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多幸히도 韓國科學技術界의 指導層 人士들은 이러한 事情을 잘 諒知하시고 다른 많은 開發途上國家와는 달리 위의 세가지 科學技術導入經路間의 相互交流와 그 均衡있는 發展에 着眼한지 오래이고 이 目標을 위하여 여러가지 適切한 布石을 하고 그 實現에 努力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點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政府當局이나 一般國民이 科學의 뒷받침 없는 技術 卽, 合理的인 知識體系의 一部로서 把握되지 않은 斷片인 技術은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와 같아서 土着化하기 어렵고 發展하기 어렵다는 點을 理解하도록 우선 科學技術人부터 努力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全 國民이 오늘의 世界에서는 科學的인 自立이 政治的인 獨立, 經濟的인 自立에 못지않게 重要한 일이라는 것을 認識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學術大會를 開催하는데 積極的으로 協力하고 後援하여 주신 關係諸機關과 個人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感謝드리고 이 學術大會가 成功的으로 끝나 斯期의 目的을 達成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